FP 학회 세미나

주요국 ESG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승준

2023.8.25.

목 차

1. 논의 배경
2. 탄소중립 금융규제
3. 탄소중립 산업정책
4. 시사점

I

논의 배경

1. 기후위기의 심화와 정책 전환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1. 기후위기의 심화와 정책 전환

✓ 온난화(Warming) -> 비등화(Boiling)

- 2023년 7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 (WMO)
- 해수면 온도도 엘니뇨 현상과 함께 신기록 작성 예상
- UN 사무총장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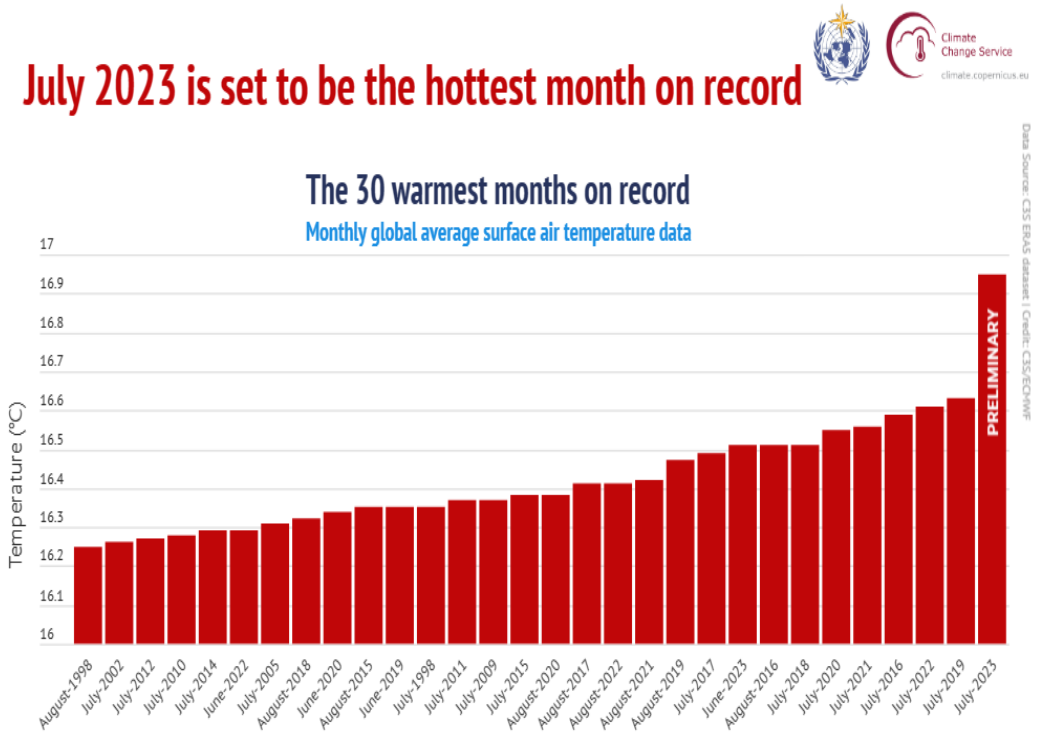
✓ IPPC 6차 종합보고서(2023.3)

- 이론의 여지 없이(Unequivocally) 인류활동의 결과물인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화
- 2050 탄소중립(1.5°C 목표)의 절박성 : 이미 1.1°C 상승
- 각종 자연재해와 이상기온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2015 파리협정 -> 국가별 정책 대응

- 현재 133개 국가에서 탄소중립 선언
- 배출량의 88%, GDP의 92%, 인구의 85% 차지
- 탄소중립 경제전환을 위한 정책

<그림 1> 글로벌 이상기온 현상



자료: WMO, EU(2023.7)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EU Action Plan (2018.3)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자본 흐름을 지속가능 투자로 유도
   - Action 1 EU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
   - Action 2 녹색금융상품 기준제정
   - Action 3 지속가능 인프라투자
   - Action 4 금융상품판매에 지속가능성 선호 반영
   - Action 5 지속가능 벤치마크 개발

2.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한 금융 리스크 관리
   - Action 6 신용평가와 시장분석에 지속가능성 반영
   - Action 7 기관투자가와 자산운용사 책임에 지속가능성 명시
   - Action 8 재무건전성 요건에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반영

3. 금융 및 경제 활동의 투명성과 장기성 촉진
   - Action 9 지속가능 관련 **공시 강화(SFDR, CSRD)**
   - Action 10 지속가능 기업지배구조 및 장기적 의사결정

Ⅱ

탄소중립 금융규제

1. 분류체계 Taxonomy
2. 공시 Disclosure

kiri 보험연구원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1) 목적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과 녹색기술로 유입되도록 지원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효과

2) 경과

✓ **2018.6 ~ 2020.7 지속가능 금융 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 활동**

✓ **2020.6.22 EU Official Journal에 공시, 2020.7.12 발효**

✓ **2021.12.9 EU 집행위원회 위임입법(기후) 발표, 2022년부터 적용**

✓ **2022.7.15 EU 집행위원회 보충위임입법(기후) 발표, 2023년부터 적용**

- 배출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
- 7월 의회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포함 표결 통과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3) 6가지 환경 목표

- ✓ **기후**변화 완화
- ✓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호
- ✓ 오염 방지 및 제어
- ✓ **기후** 변화 적응
- ✓ 순환 경제로의 전환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복원

4) 요건

- ✓ 경제활동은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인정
- ✓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 준수 (Minimum Social Safeguards)
- ✓ 경제활동이 환경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나머지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양적 및 질적 임계값 또는 조건인 TSC(Technical Screening Criteria) 만족

1. 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

5) 적용 대상

✓ 지속가능 공시의무를 가진 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RDR)을 통하여 분류체계규정에 따라 친환경 경제활동 비중을 공시

6) 적용 일정

✓ **2020.6.22 EU Official Journal에 공시, 2020.7.12 발효**

✓ **2021.4.21 EU 집행위원회 위임입법 발표, 2021.6.4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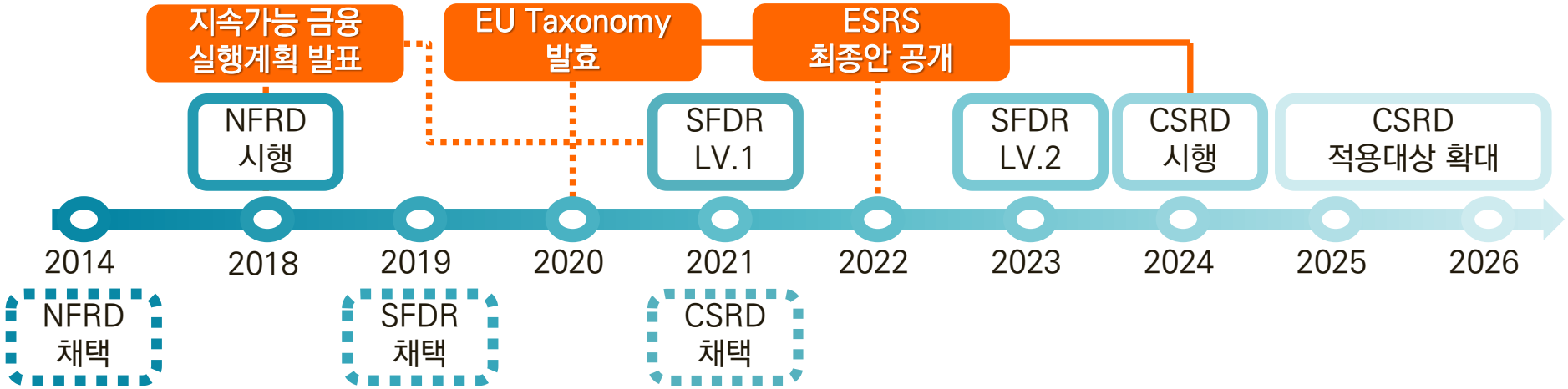
✓ 2022년 1월 EU 녹색분류체계 후속법안 초안 발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

✓ 2022년 2월 EU 녹색분류체계 후속법안 발표, 7월 의회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포함 표결 통과

- 배출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

2. EU 기후공시제도

1) 개관



제도	시행	적용대상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2018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2024	NFRD 적용 기업 (2026년 까지 대기업 상장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예정)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2021	금융기관(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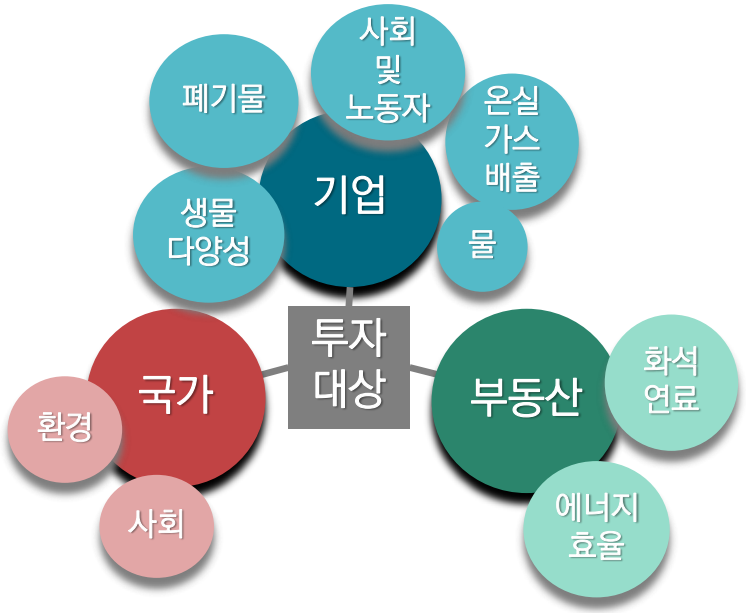
2. EU 기후공시제도

2)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FDR의 목적 – 지속가능한 투자로의 방향 전환과 투명성 제고

SFDR 공시 의무

- **기업 단위(Entity Level)**
  - 자산운용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지표
- **금융상품 단위(Product Level)**
  - 역내 금융상품이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



〈SFDR의 금융상품 분류 체계〉

제 6조	제 8조 라이트 그린	제9조 다크 그린
제 8조, 9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 상품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 공시 내용 강도

2. EU 기후공시제도

3)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v.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NFRD	CSRD
채택	2014	2021
시행	2018-2023	2024 (2026년까지 적용기업 확대)
적용 기업 수	약 11,700개 기업	약 49,700개 기업
보고요건 범위	• 환경보호 •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 인권 보호 • 부패 및 뇌물 방지 • 이사회 다양성	• NFRD의 보고요건 범위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중 중요성)** • ESG 장기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 사회, 인간,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TCFD에 따른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 SFDR 및 EU 택소노미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3자 검증 여부	3자 검증 의무 X	3자 검증 필요
보고 위치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은 연간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 내	연간 경영보고서 내
포맷	온라인 PDF 파일	전자 포맷(XHTML)

자료: EU PARLIAMENT(2014, 2022)

2. EU 기후공시제도

4)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역내 CSRD 적용기업은 해당 보고표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이행하여야 함
ESRS = CSRD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통표준

- ESRS1 일반요구사항
- ESRS2 일반 공시 사항

주제별 표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기업 자체의 인력	ESRS G1: 사업 수행 방식
ESRS E2: 오염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ESRS E3: 물 및 해양자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2. EU 기후공시제도

4)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공통표준

ESRS 1

일반 항목

- ESRS 분류
- 정보의 정성적 특징
- 이중 중요성
- 지속가능성 실사
- 공급망
- 시계열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방법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구조
- 보고 기업과 연계된 정보와의 연관성
- 경과 규정

ESRS 2

공통 공시 항목

- 지배구조
- 전략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지표 및 목표

주제별 표준

- 환경 — 기후변화(E1), 오염 (E2)…(E5)
- 사회 — 기업 자체 인력(S1)… (S4)
- 지배구조 — 사업 수행 방식(G1)

- IFRS S1의 일반 항목과 핵심항목은 ESRS의 ESRS1, ESRS2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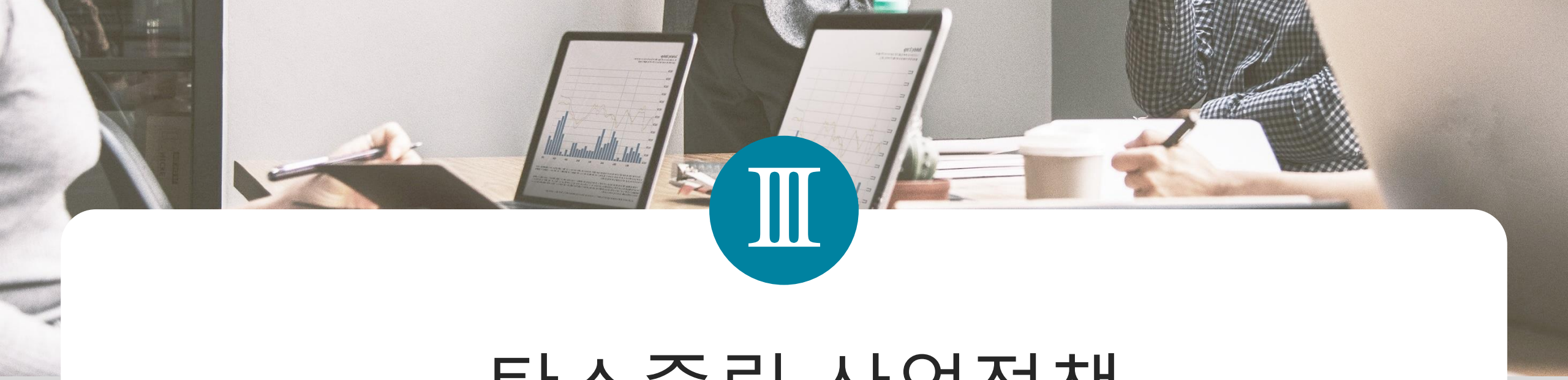
참고: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

1) Regulation S-K & Regulation S-X 내 규칙 신설(2022.3)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SEC Climate Disclosure Rule)

- Regulation S-K: 비재무적 공시 규정
  - Item 1501~1507
- Regulation S-X: 재무제표 주석 공시 규정
  - Article 14
    - 재무 영향 지표
    - 지출 지표
    - 추정 및 가정

*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은 기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만 SEC는 '기후'에 대한 공시만을 요구



Ⅲ

탄소중립 산업정책

1. 산업정책 개요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3. EU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

1. 산업정책 개요

✓ **기후위기 심화로 정책대응 과정에서 환경 관련 신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 관련 글로벌시장이 6,500억 달러(약 870 조 원)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성장하고 고용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3),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 **친환경 탄소중립 경제 전환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이자 기회**

-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통한 신기술 지원 및 신산업 육성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하여 해외의존을 줄여 공급망 안정성 확보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1) 목적

✓ **청정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재정적자 감축, 공공보건 지원 및 의료비 절감**

2)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 세제 혜택, 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

- 주거 부문의 녹색 전환 촉진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지원
- 특히,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 및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로 집중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

2. EU 탄소중립산업법

1) 목적

✓ 청정 신기술 혁신 촉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

-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규제환경
- 녹색 전환과정의 직업기술 강화
- 녹색금융 재원조달 속도 향상
- 공급망 관련 공정경쟁과 자유무역

✓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상품의 EU 내 제조를 촉진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탄소중립산업법』 도입 추진

2) 주요 내용

✓ 청정 신기술 혁신 촉진, 관련 산업 지원 및 수요 확대

-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신기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고, 'One-stop-shop' 개념의 행정 창구 단일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전기분해장치 등 8대 탄소중립기술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의 EU 역내 제조비율 목표를 연간 수요의 40% 이상으로 확대

Ⅳ

시사점

1. 탄소중립 금융규제
2. 탄소중립 산업정책

1. 탄소중립 금융규제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2021/12/30)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과 녹색기술로 유입되도록 지원하고 그린워싱을 예방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022/12/27)

-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와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 – 상장기업 대상으로 2025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속가능공시 의무화
- ESG 투자 활성화: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 개선, ESG 평가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이외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지원, ESG 정보 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투자 선도 등의 내용을 담음

✓ 탄소중립 금융제도의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서둘러야 함

2. 산업정책

✓ 산업정책

- 우리나라는 EU 및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현지의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적극 적인 산업정책 지원이 요구됨

✓ 보험산업

- 국내 보험산업은 청정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녹색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 및 성장의 기회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보험인수, 자산운용 등의 사업모형을 활용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2023/3/21)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 마련
-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 제시
-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 (목표 상향)
-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
-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
-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

국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단위: 백만톤CO_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율)

구분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21.10)	수정 NDC('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0(32.8%)	35.0(32.8%)
	수송	98.1	61.0(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자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23)

감사합니다.